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더움 이름: 한지수

제목 : 오랜만에 여행이다.

오늘 나는 수목금의 시범으로 인해 다리가 삐어서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다. 침 맞으러 가기 전에 우리카족이 자주 가는 커피숍에 영마랑 갔다. 우리엄마는 카페라떼, 나는 아이스티를 마셨다. 음료는 들고 한의원에 갔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나니 다리가 덜 아파났다. 우리는 한의원 근처에 있는 벚마켓에 차를 세워서 그쪽으로 갔다. 얼마나 장을 봐온 동안 나는 그 곳에 있는 패 거든에서 강아지를 보고 앉았다. 그곳 강아지들은 다 새끼여서 귀여웠다. 특히 나는 치와와가 귀여웠다. 우리엄마도 동물은 좋아하는데, 키우는 건 싫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번 시험 평균이 95점 이상 나오면 강아지를 사주려고 하였다. 엄마는 좋다고 한다. 집에 오니 벌써 1시가 넘었다. 1시 40분에 미술 있는데...

급하게 밥을 먹고 미술하러 나갔다. 미술은 날씨가 좋다고 여의도에 가서 그림을 그렸다.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천천히 꼼꼼히 그려서 점수를 높게 주셨다. 사람이 많아서 그리기 어려웠지만 왠지 모르게 즐거웠다. 날이 더워서 못 좋아하는 아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미술값다가 와서 TV를 보며 핸드폰은 허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밥을 먹고 강아지를 보았다. 그 강아지들은 종류도 많고 더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었다. 오늘은 아픈 곳도 없어서 기분이 좋았다.